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1호 [주제 제25274호] 주제 105 (2016)년 5월 10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경도자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주제 105 (2016)년 5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  
함에 대한 의정을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학월한 사상과 비범한 정도, 숭고한 덕망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멀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우리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멀치시여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역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시였으며 우리당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  
하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밀에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제가  
철저히 확립되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있다.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멀쳐지고  
조국땅우에 자력자강으로 새기를 주름잡으며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만리마  
시대, 창조와 건설의 일대 번영기가 절처지고 있는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정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 전군, 전민을 충정의 70일전투에 불려  
입으키시고 전례없는 기적적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전두지휘 하시여 당 제7차  
대회가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위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가치이며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필승불패의 평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 온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와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전위는 절대적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네원을 반영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폐회사

## 김정은



대표자동지들!

혁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전체 대표자동지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열렬한 축원과 기대 속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이제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당 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불멸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위업, 주체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표시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 혁명 위업 수행에서 천만년 드높지 않을 기쁨을 마련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운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주체 혁명 위업 수행의 중대한 혁사적 시기에 소집되어 상정된 의정들에 대한 토의를 원만히 진행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대회의 성과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폐회선언을 앞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서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의 준엄한 혁사를 다시금 들이켜보니 혁사의 모진 풍파를 헤치며 강대한 이 조선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고 평온한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가식

과 변심이 없이 평도자의 뜻과 위업을 밟들어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다 먼저 떠나간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들의 이름과 모습들이 선히 떠오릅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서지 못하였지만 총결기간 우리 당의 절정한 통지가 되여 간고한 시련의 길을 헤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봄바쳐 투쟁한 귀중한 혁명 전우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총결기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평도밀에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 혁명 위업 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를 긍지 높이 충하하였습니다.

당 제7차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치 밀에 사회주의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우리 인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았으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회가 제시한 중대한 목표와 혁명적 로선과 정책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를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전당, 전군, 전민을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 기치로 될 것입니다.

대회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 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서라는 것을 당 규약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 사상과 혁명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갈 것입니다.

대회에서는 전당의 의사를 모아 당중앙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였습니다.

모든 대표자동지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당중앙지도기관이 새로 선거된 것은 우리 당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치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나는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나에게 높은 신임을 표시하여 준데 대하여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자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 것이며 설사 몸이 맷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밟들어 혁명 앞에 충실히 할 것을 맹약합니다.

새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는 대회가 제시한 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주체 혁명 위업 수행에서 지난 혁사적 사명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당원동지들과 인민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 위천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밟들어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에게 의지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것이며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을 깊이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로선과 방침 관철에서 견결한 선봉투사가 되며 광범한 대중을 당대회 결정 관철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유능한 조직자, 선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방대하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 세력들의 책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 단결이 있으며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적 무장력이 무적의붉은 총창을 비껴들고 있기에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우리가 쟁취할 것입니다.

모두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당 중앙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조국의 자주적 통일, 세계 자주화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나는 모든 대표자동지들과 우리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굽함 없는 풍랑정신과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 제7차 대회가 내놓은 혁명적 로선과 방침들이 철저히 관철되고 주체 혁명 위업 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이 이룩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혁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당의 두리에 굳게 몽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폐막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렬한 축하와 기대 속에 개막되었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5월 9일 폐막되었다.

이날 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절처 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휘황한 실계도 따라 주체 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전체 대회 참가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드높은 혁명적 열정이 새차게 분출되는 속에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 할 때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는 추대사를 김영남동지가 하였다.

각 도당조직대표들이 황병서동지, 전용남동지, 주영길동지, 리명길동지, 태형천동지가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네원과 불타는 충정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직책인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때 대한한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그들은 천만군민이 실장으로 발들어 모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할 전시기 시고 당의 영도력을 백방으로 높여 인민의 자주적인 품과 리상을 꽂피우고 주체조선

의 존엄과 위용을 떨쳐가시는 회세의 정치가, 탁월한 영도자이시라고 격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 확률 군진설의 통적임무로 제시하시고 오중홀 7현대 청호생취운동파 근위부대운동의 불길을 지펴울리시에 인민군대를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판밖에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 당의 위엄에 무한히 충직한 불폐의 혁명적당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군대가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신 회세의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오늘 우리 혁명무력은 김일성·김정일 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으로 무장하고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중시를 당파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주체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정치적후비대, 척후대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청년들은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 사회주의 미풍선구들로 자라났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이 높이 떨쳐지고 있다고 긍지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세계를 뒤흔드는 특대사변들, 이 다재단으로 일어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의 문명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되고 있는 주체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토속하고 세련된 영도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면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억세게 걸어온것처럼 앞으로 그 어떤 천지중파가 닥쳐와도 김정은동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중앙의 영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네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4 번 으로 계속



# 당의 두리에 굳게 끌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앞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폐막



## 3면에서 계속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대표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리었다.

대회장은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는 철세의 위인, 타월한 령도자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놓이 모신 크나큰 격정과 환희,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끌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드림없는 신념과 불같은 열정으로 세차게 뛰어번지였다.

대회에서는 다섯째 의정인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세칙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었음을 염숙히 선포하였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먼저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였다.

추천된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 위원 후보자들 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 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대회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후보자들 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 찬성으로 당중앙

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내용이 통보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에 대한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정무국이 조직되었다는 것이 통보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이 통보되었다.

당중앙위원회 부부장들과 당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책임주필이 임명되었다는 것이 통보되었다.

당중앙위원회 결집위원회 선거결과가 발표되었다.

대회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내용이 통보되었다.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

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풍격 앞으로!』를 발표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폐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폐회를 선언하시자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노래가 주악되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또다시 터치올리는 우렁찬 박수와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며 따뜻한 담배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가치밑에 백두의

대업을 완성해나아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을 이룬 의의깊은 대회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영원히 한걸음 가더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위대한 혼연일체의 대회로,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신심드높이 친진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억센 기상과 불멸의 위력을 온 세상에 두렷이 보여 준 승리자의 대회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천만군민을 적극 고무주동한 새로운 혁명적 총진군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찬연한 빛을 뿐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제 7 기 제 1 차 전 원 회 의 진 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가 5월 9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국을 조직하였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당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을 임명  
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검찰위원회 위원장, 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주체 105 (2016) 년 5월 9일

## 당 중 앙 위 원 회 정 치 국 상 무 위 원 회

김 정 은  
김 영 남 황 병 서 박 봉 주 최 룡 해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 김 정 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양형섭	로두철	박영식	리명수
김원홍	최부일		

###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 정 은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최룡해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리용호
임철웅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리영길			

### 당 중 앙 군 사 위 원 회

#### 위원장 김 정 은

위원장	김영철	박봉주	박영식
위원	리만건	김원홍	최부일
황병서	김경옥	리영길	서홍찬

### 당 중 앙 위 원 회 부 장

김기남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김영철	리만건	리일환	안정수
리철만	최상건	리영래	김정임
김중협	김만성	김용수	

###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

위원장	홍인범
1부위원장	정명학
부위원장	리득남
위원	

### 당중앙위원회기관지 『로동신문』

책임주필 리영식

김영환 김금철 김용선 김명철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공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선거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 당 중 앙 위 원 회 위 원

### 김 정 정

김영남	황병서	최봉해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리용무	오극렬	리명수	강석주	파범기	오수용	김영철
양형섭	김원홍	김평해	박영식	로두철	최부일	조연준	김용진	임철웅	김덕훈	리무영	리철만	리일환
리만건	안정수	최상건	리영래	김정임	김중협	김만성	홍인범	김경옥	리재일	최휘	리병철	김용수
조용원	리영식	김여정	홍승무	박도춘	김영춘	현철해	리영길	서홍찬	김정각	노광철	김정판	윤동현
김형룡	조남진	럼철성	조경철	박정천	윤영식	김락겸	리용주	최영호	위성일	방두섭	리성국	양동훈
리태섭	박수일	김상룡	김금철	김영복	김명남	김송철	리창한	한창순	윤정린	김성덕	리용환	로경준
최영림	홍선옥	김영호	조춘봉	김철만	리수용	김만수	장혁	동정호	리동남	김승두	장기호	장철
김정숙	김계관	김동일	장창하	리홍섭	리용호	주영식	전용남	장병규	장정남	장필흔	김수길	박태성
강양모	김능오	박영호	박태덕	김재룡	박정남	전승훈	김성일	리상원	립경만	태종수	리광철	전경선
오문현	박종근	최영덕	리종식	고병현	리봉덕	정인국	최명철	태형철	홍서현	전일호		

## 당 중 앙 위 원 회 후 보 위 원

전일춘	김성남	정명학	김희택	강판일	김승연	김병호	김정식	윤동철	동영일	한광상	최두용	리봉춘
송석원	장순남	송영진	고명수	김광수	허성일	리영철	리철	김광혁	허영춘	손철주	장동운	차경일
오금철	김명식	장기섭	리국준	송준설	문명학	김용광	강종판	리학철	리춘삼	고길선	한룡국	리종국
김재성	김광철	권성호	최일룡	조영철	강영철	기왕호	김경준	강영수	문옹조	강하국	박춘남	리종무
리충길	김천균	왕창욱	유철우	백봉선	박원학	리혜정	안동춘	리찬화	황순희	주규창	김두일	강봉훈
리승호	주영길	리명길	김정순	강윤석	신윤학	김형준	지재룡	차희립	강형봉	김영철	김동일	윤재혁
박창범	합세진	오춘영	차진순	최봉호	정몽필	리창길	장경철	리성권	양승호	송광철	조현문	김충걸
한성남	송기철	최찬진	김광남	명송철	립준성	리형근	장명학	김승일	정일만	김명식	김철수	명선영
허팡일	리민철											

## 당 중 앙 검 사 위 원 회 위 원

최승호	박명순	김경남	황칠식	김용철	리영익
김명훈	계영삼	조정호	계명철	장정주	포희성
정봉석	최권수	허팡욱			

## 당 중 앙 검 사 위 원 회 에 서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가 5월 9일에 전개되었다.  
전원회의에는 당대회에서 선거된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거하였다.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 원 장 최승호      부위원장 박명순



추

대

사

치높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  
가시는 정의와 진리의 수호자, 인류  
자주위업의 탁월한 영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빼어  
조선로동당의 명도력과 전투력이 뛰  
방으로 강화되고 선군조선은 국제정  
치를 주도해나가는 원위있고 힘있는  
나라로 위용떨치고있으며 지금 세계  
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세운 기  
준걸을 중심으로 변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하신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평보고  
에서 우리 당을 위해 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  
키며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세계자본주의를 실현하  
기 위한 투쟁파업과 봉도를 뿐아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인민의 위대한 아버이  
이십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  
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의라는 위대한  
사상을 천명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멀사  
복무를 당의 존재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요구와의 협우를 희우선, 절대지  
하며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  
폐행위를 뿌리치기 위한 필비평을 일  
으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  
민의 운명과 생활을 정열적인 정으로  
뜻이 높아나가시는 당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밑에 철만단을 통과  
하는 파학기술적성파들이 수많이 창  
조되어 지식경계시대의 본보기, 표우선,  
제대지하며 세도와 판로주의, 부정부  
폐행위를 뿌리치기 위한 필비평을 일  
으시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파  
명도를 일편단심 높이 뱉어나가고있는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  
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당  
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  
결같은 의사를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본 대회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밝혔다.

김정서는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에  
당의 최고정책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을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명도하는 당의 최고영도자이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제를  
부위원장으로, 도, 시, 군당위원회와 기초당  
조직의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직제를 위원  
장, 부위원장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명령을 정무국으로,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의 명령을 정무처로 규제하였다  
하였다.

이밖에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에  
현행당규약의 장, 조항률과 그 내용을 현실  
방침의 요구에 맞게 일부 수정보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개정된 『조선  
로동당규약』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천지 세우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  
를 앞당기는데 이바지 할것이다.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  
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  
하였다.

결정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이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로속하고 세련된 명도밑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당, 주체의 혁명적령으로 강화  
발전되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월한 명도와 혁명적령으로 당을 대  
하게 하는 당의 최고영도자이시며 최고의  
영광을 품고 있다.

결정서는 『조선로동당규약』이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끌어당기고 당을 대하게  
하는 당의 최고영도자이시며 최고의 영광  
을 품고 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덕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으로  
창건되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으로 당을 대하게 하는 당의 최고  
영도자이시며 최고의 영광을 품고 있다.

결정서는 『조선로동당규약』을 개정하는  
의미를 확신했다.

결정서는 『조선로동당규약』을 개정하는  
의미를 확신했다.</

##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



## 정치국 위원들



## 정치국 후보위원들



# 전체 인민 군장 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호소문

##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

동지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드높은 혁명적 열의, 절대적인 신뢰에 머물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는 자기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고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당 제7차 대회는 우리 인류정치사에서 가장 꼽을 만하고 심각한 통합과 대결의 시기였던 지난 35년 동안에 조선로동당이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 혁명과 인류의 자주화 위업을 위하여 얼마나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렸으며 혁사의 만년시 전역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얼마나 협력하고 굳건한 협연으로 일심 단결되었는가를 온 세상에 뚜렷히 보여주었다.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도전과 도발을 짓부수버리면서 수소 만의 장쾌한 폭음으로 서력을 열고 지구판축위성 《평양성-4호》의 성공적 발사와 충정의 70일 전투로 눈부시게 장식한 2016년의 대적전은 그대로 당 제6차 대회 이후 35년간의 우리 모든 우정의 속초만이었으며 하늘이 무너져도 자기의 목적을 기어이 성실히하고 아미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결심과 전진을 저지시킬 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음을 실증해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 제7차 대회의 및나는 승리는 가장 위대한 지도사상과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혁명을 이끌어왔으며 수행의 사상과 위업의 계승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고 수령, 당, 대중의 흥일단결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한 혁전승 조선로동당의 실력을 만천하에 평가하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펼친 천리마속도의 전설을 이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 당 제7차 대회의 모든 결정들을 철저히 판찰하고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온 세상에 궁지들이 선언하자.

모두다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월에!

모든 힘을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월을 위하여!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누구나 만리마를 라고 어디서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자. 천리마세도처럼 우리 세대가 주제 조선의 새로운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자.

단 몇번의 도약으로 우주궤도에 단초에 철입하는 우주로 데려온다. 다양하고 철학적인 혁신과 기적으로, 다계단의 범으로 세기를 주름잡을 때마다 세상을 끌어보는 천하제일 강대국의 높이에 우뚝 올라서자. 당 중앙이 정한 단계별로 빠른 힘으로 철학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당의 전략적인 병진로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이 혁명원칙은 깊이 깊을 다시금 뮤겁에 절감하게 되는 혁사적 계기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사신관은 정신력과 일관된 실의 어족충정을 굽게 믿고 조국 백사에서 가장 둥대한 혁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대회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으로 주체혁명위업을 풀까지 완수할 조선로동당의 흥보선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제7차 대회에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세계사회주의 위업의 창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철학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 문제들과 정책들, 강령적 과업들이 토의되었다.

혁명앞에 지난 자기의 영광스러운 책임감을 다시금 뮤겁에 절감하게 되는 혁사적 계기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사신관은 정신력과 일관된 실의 어족충정을 굽게 믿고 조국 백사에서 가장 둥대한 혁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대회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으로 주체혁명위업을 풀까지 완수할 조선로동당의 흥보선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제7차 대회에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세계사회주의 위업의 창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철학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 문제들과 정책들, 강령적 과업들이 토의되었다.

그것은 또한 자강력에 의주의 기치들이 파악기술의 힘으로 경제와 문화, 우리 생활의 모든 평역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요구에 맞게 적극변화, 질적비약을 이루기 위한 전인민적인 자력갱생 대처군운동이며, 끊임없이 새 기준과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향해 우고 따라 앞서며 최단기 기간에 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수하기 위한 뻔뻔공세, 철속전진, 계속혁신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다.

하여 우리 당의 흥보선은 3대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수행하고 3대 혁명들은 기정운용을 더욱 활짝하게 추진시키며 우리 국가의 힘, 우리 사회의 힘, 우리 인민의 힘으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모범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는 것이 바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계의도이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첫째 파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이 바라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는 곧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사상으로 뜨거운 뜨거운 철원도 실신도 똑같은 주체혁명의 혁명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명도따라 혁의의 혁경속에서 최대의 성과와 혁상의 전면을 이루어낸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행도만 따르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반드시贯彻되고 이 조선은 기밀로 세계제일의 강대국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험해하고 철학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당의 전략적인 병진로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이 혁명원칙은 깊이 깊을 다시금 뮤겁에 절감하게 되는 혁사적 계기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사신관은 정신력과 일관된 실의 어족충정을 굽게 믿고 조국 백사에서 가장 둥대한 혁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대회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으로 주체혁명위업을 풀까지 완수할 조선로동당의 흥보선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제7차 대회에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세계사회주의 위업의 창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철학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 문제들과 정책들, 강령적 과업들이 토의되었다.

그것은 또한 자강력에 의주의 기치들이 파악기술의 힘으로 경제와 문화, 우리 생활의 모든 평역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요구에 맞게 적극변화, 질적비약을 이루기 위한 전인민적인 자력갱생 대처군운동이며, 끊임없이 새 기준과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향해 우고 따라 앞서며 최단기 기간에 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수하기 위한 뻔뻔공세, 철속전진, 계속혁신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다.

하여 우리 당의 흥보선은 3대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수행하고 3대 혁명들은 기정운용을 더욱 활짝하게 추진시키며 우리 국가의 힘, 우리 사회의 힘, 우리 인민의 힘으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모범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는 것이 바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계의도이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첫째 파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이 바라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는 곧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사상으로 뜨거운 뜨거운 철원도 실신도 똑같은 주체혁명의 혁명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명도따라 혁의의 혁경속에서 최대의 성과와 혁상의 전면을 이루어낸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행도만 따르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반드시贯彻되고 이 조선은 기밀로 세계제일의 강대국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험해하고 철학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당의 전략적인 병진로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이 혁명원칙은 깊이 깊을 다시금 뮤겁에 절감하게 되는 혁사적 계기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사신관은 정신력과 일관된 실의 어족충정을 굽게 믿고 조국 백사에서 가장 둥대한 혁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대회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으로 주체혁명위업을 풀까지 완수할 조선로동당의 흥보선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제7차 대회에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세계사회주의 위업의 창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철학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 문제들과 정책들, 강령적 과업들이 토의되었다.

그것은 또한 자강력에 의주의 기치들이 파악기술의 힘으로 경제와 문화, 우리 생활의 모든 평역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요구에 맞게 적극변화, 질적비약을 이루기 위한 전인민적인 자력갱생 대처군운동이며, 끊임없이 새 기준과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향해 우고 따라 앞서며 최단기 기간에 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수하기 위한 뻔뻔공세, 철속전진, 계속혁신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다.

하여 우리 당의 흥보선은 3대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수행하고 3대 혁명들은 기정운용을 더욱 활짝하게 추진시키며 우리 국가의 힘, 우리 사회의 힘, 우리 인민의 힘으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모범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는 것이 바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계의도이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첫째 파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이 바라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는 곧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사상으로 뜨거운 뜨거운 철원도 실신도 똑같은 주체혁명의 혁명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명도따라 혁의의 혁경속에서 최대의 성과와 혁상의 전면을 이루어낸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행도만 따르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반드시贯彻되고 이 조선은 기밀로 세계제일의 강대국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험해하고 철학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당의 전략적인 병진로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이 혁명원칙은 깊이 깊을 다시금 뮤겁에 절감하게 되는 혁사적 계기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사신관은 정신력과 일관된 실의 어족충정을 굽게 믿고 조국 백사에서 가장 둥대한 혁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대회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으로 주체혁명위업을 풀까지 완수할 조선로동당의 흥보선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제7차 대회에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세계사회주의 위업의 창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철학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 문제들과 정책들, 강령적 과업들이 토의되었다.

그것은 또한 자강력에 의주의 기치들이 파악기술의 힘으로 경제와 문화, 우리 생활의 모든 평역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요구에 맞게 적극변화, 질적비약을 이루기 위한 전인민적인 자력갱생 대처군운동이며, 끊임없이 새 기준과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향해 우고 따라 앞서며 최단기 기간에 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수하기 위한 뻔뻔공세, 철속전진, 계속혁신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다.

하여 우리 당의 흥보선은 3대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수행하고 3대 혁명들은 기정운용을 더욱 활짝하게 추진시키며 우리 국가의 힘, 우리 사회의 힘, 우리 인민의 힘으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모범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는 것이 바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계의도이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첫째 파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이 바라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는 곧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사상으로 뜨거운 뜨거운 철원도 실신도 똑같은 주체혁명의 혁명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명도따라 혁의의 혁경속에서 최대의 성과와 혁상의 전면을 이루어낸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행도만 따르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반드시贯彻되고 이 조선은 기밀로 세계제일의 강대국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험해하고 철학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당의 전략적인 병진로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이 혁명원칙은 깊이 깊을 다시금 뮤겁에 절감하게 되는 혁사적 계기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사신관은 정신력과 일관된 실의 어족충정을 굽게 믿고 조국 백사에서 가장 둥대한 혁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대회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으로 주체혁명위업을 풀까지 완수할 조선로동당의 흥보선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제7차 대회에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세계사회주의 위업의 창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철학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 문제들과 정책들, 강령적 과업들이 토의되었다.

그것은 또한 자강력에 의주의 기치들이 파악기술의 힘으로 경제와 문화, 우리 생활의 모든 평역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요구에 맞게 적극변화, 질적비약을 이루기 위한 전인민적인 자력갱생 대처군운동이며, 끊임없이 새 기준과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향해 우고 따라 앞서며 최단기 기간에 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수하기 위한 뻔뻔공세, 철속전진, 계속혁신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다.

하여 우리 당의 흥보선은 3대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수행하고 3대 혁명들은 기정운용을 더욱 활짝하게 추진시키며 우리 국가의 힘, 우리 사회의 힘, 우리 인민의 힘으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모범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는 것이 바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계의도이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첫째 파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이 바라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는 곧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사상으로 뜨거운 뜨거운 철원도 실신도 똑같은 주체혁명의 혁명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명도따라 혁의의 혁경속에서 최대의 성과와 혁상의 전면을 이루어낸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행도만 따르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반드시贯彻되고 이 조선은 기밀로 세계제일의 강대국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험해하고 철학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당의 전략적인 병진로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이 혁명원칙은 깊이 깊을 다시금 뮤겁에 절감하게 되는 혁사적 계기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사신관은 정신력과 일관된 실의 어족충정을 굽게 믿고 조국 백사에서 가장 둥대한 혁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대회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으로 주체혁명위업을 풀까지 완수할 조선로동당의 흥보선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제7차 대회에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세계사회주의 위업의 창발전에서 매우 중대하고 철학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략적 문제들과 정책들, 강령적 과업들이 토의되었다.

그것은 또한 자강력에 의주의 기치들이 파악기술의 힘으로 경제와 문화, 우리 생활의 모든 평역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요구에 맞게 적극변화, 질적비약을 이루기 위한 전인민적인 자력갱생 대처군운동이며, 끊임없이 새 기준과 전형을 창조하고 그것을 향해 우고 따라 앞서며 최단기 기간에 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수하기 위한 뻔뻔공세, 철속전진, 계속혁신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다.

하여 우리 당의 흥보선은 3대 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수행하고 3대 혁명들은 기정운용을 더욱 활짝하게 추진시키며 우리 국가의 힘, 우리 사회의 힘, 우리 인민의 힘으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모범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는 것이 바로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계의도이다.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첫째 파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우리 당이 바라는 김일성-김정일주의자는 곧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사상으로 뜨거운 뜨거운 철원도 실신도 똑같은 주체혁명의 혁명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명도따라 혁의의 혁경속에서 최대의 성과와 혁상의 전면을 이루어낸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행도만 따르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반드시贯彻되고 이 조선은 기밀로 세계제일의 강대국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험해하고 철학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당의 전략적인 병진로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조선로동당의 불변의 이 혁명원칙은 깊이 깊을 다시금 뮤겁에 절감하게 되는 혁사적 계기에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우리 인민의 불사신관은 정신력과 일관된 실의 어족충정을 굽게 믿고 조국 백사에서 가장 둥대한 혁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 대회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으로 주체혁명위업을 풀까지 완수할 조선로동당의 흥보선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제7차 대회에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 주체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세계사회주의 위업의 창발전에서 매우 중대